유가·금리에 더해 AI 속도조절론까지 증시 압박 가중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AI 개발 속도조절론에 기술섹터 속락

- 미 증시는 DOW -0.29%, S&P500 -0.48%, NASDAQ -0.56% 하락. 통신서비스, 헬스케어, 필수소비재 강세, 기술주, 산업재, 유틸리티 등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-5.9%. 12 일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가 제기한 'AI 개발 속도조절론' 여파로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투자 속도 둔화를 우려, AI 밸류체인 전반 약세. 한편 사이버보안·S/W 수요 확대 기대에 강세, 하이퍼스케일러도 자본지출 부담 완화로 해석되며 상승

10 년물 국채금리 장중 5%대 기록 후 소강, 9 월 금리인상 확실시

- 국채금리 하락 10Y 4.960%(-1.4bp) 2Y 4.637%(-0.7bp) 장중 10Y 5%대를 상회했으나 유가상승세 일부 진정되며 하락 전환
- 한편 16-17 일 FOMC 를 앞두고 CME FedWatch 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92.4%로 반영하며 기정사실화. 도이체방크는 금리인상 자체보다 연준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코멘트.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증시 강세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

사우디 핵심 송유관 폐쇄, 걸프국 협상 난항.. 트럼프 발언에 진정

- 국제유가 상승 WTI $101.4(+1.3%), Brent $105.7(+1.0%). 사우디 공급망 및 외교 불안에 장중 상승폭 높았으나, 트럼프 대통령의 러-우전쟁 및 중동전쟁 관련 공격 중단과 합의 가능성 시사 발언에 상승폭 축소
- 사우디의 핵심 수출수단인 동서송유관 피격에 의한 폐쇄로 공급 불안 확대, 14 일 예정이던 이란 및 걸프국가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를 위한 회담도 사우디 불참에 연기 조치
- 한편, 이란 측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걸프국가의 원유수송 압박 강화, 오만과 임시통항합의에 따르지 않은 블랙리스트 선박 77 척 리스트를 공개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MH	반도체 ETF	-4.8%	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오픈AI CEO 샘 올트먼의 AI 개발 속도 조절 및 안전성 확보 촉구 여파로 반도체 중심의 차익 매물 출회. 엔비디아(-3.4%)는 AI 개발 속도 조절에 따른 GPU 트레이닝 수요 둔화 및 차세대 모델용 클러스터 투자 일정 연기 우려로 하락. 빅테크 AI 지출 감소 가능성에 마벨(-7.3%), 인텔(-5.6%) 등 반도체 비롯 AI밸류체인 전반 투심 악화
IGV	S/W ETF	+5.0%	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사이버보안 수요 확대 기대 ↑. 에버코어 ISI는 AI 개발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에이전트는 보안·거버넌스·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보안 지출 구조적 증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 코멘트. 크라우드스트라이크(+13.9%), 팔로알토(+13.1%), 서비스나우(+7.4%) 등 동반 상승
MSFT	마이크로소프트	+2.0%	'인간 우선주의(Humanist AI)'를 핵심으로 한 차세대 첨단 AI 모델 개발 윤리 헌장 발표. 또한 선두 모델 랩의 AI 안전성 중심 개발 속도 조절 합의로 후발 빅테크의 기술 격차 축소 및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 부각. 단기 Capex 부담 완화와 FCF 개선 전망이 유입되며 주가 상승. 알파벳(+3.1%), 메타(+2.7%) 동반 상승
BAC	뱅크오브아메리카	-5.1%	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바클레이스 금융 컨퍼런스에서 3Q S&T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'보합(flat)'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. IB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($20억) 대비 약 10% 감소한 $16억~$18억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며 실적 부진 우려 부각
RBLX	로블록스	+12.7%	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독립 앱 배포 및 신규 개발 툴 지원 등 플랫폼 확장 로드맵 공개. 성인 이용자층 확대 전략과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 지갑·카드 도입 계획에 주가 상승. BofA는 플랫폼 점유율 확대 잠재력을 긍정 평가하며 투자의견 '중립' 유지, 목표주가 $44→$48로 상향 조정